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8-14

제 1 차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한창일 때, 미군과 독일군 병사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용감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와서 미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미군이 쏜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독일 병사는 다시 자기 쪽 참호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시철망에 걸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솟아나오며 그 병사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군 병사가 자기 참호에서 나와 기어서 그 부상당해 가시철망에 걸린 독일 병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총을 마구 쏘고 있던 양쪽의 군인들은 그 사실을 보고는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진 상황에서 미군 병사는 마침내 가시철망에 걸린 독일 병사에게 다가가서, 걸린 옷을 찢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독일 병사를 부축해서, 독일군의 참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어 미군이 있는 참호로 걸어 왔습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군이 자기 참호로 돌아왔음에도 양쪽에서는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때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독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독일 병사 한 두 명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 노래는 바람을 타고 미국 병사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 멜로디에 따라 미국 병사들이 하나씩,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사들이 참호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양쪽 병사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 철망을 걷어 내고, 서로 어깨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독일 병사에게 미군들은 가지고 있던 양식을 성탄절 선물이라며 나누어 주었고, 부상당한 독일 군인은 미군 군의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포옹과 악수를 하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1 차 세계 대전 중에 그것도 성탄절 이브, 오늘과 같은 성탄절 이브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 성탄절 이브에 잘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의 계획이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10 절-12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 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뵈게 될 주님이시다."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헤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짙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아들이 하는 일들은 아주 못마땅한 것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충돌하다가 그만 이 아들은 집을 나가 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몇 달, 몇 해 동안을 방황 합니다. 처음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 나왔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항상 가슴 아프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하다고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Fargo)입니다.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짙막하게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정한 시간, 정오에 그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나간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800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파코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아무 조건 없다.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는 거저 용서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이고,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십니다. 당연히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피조물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만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된 날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천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 여기 안녕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평화’, ‘샬롬’ 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우해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더 본래적인 샬롬의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 깊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식과 회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샬롬 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끼를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어떤 물질의 힘으로 평화가 유지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해서 더 이상 싸움이 없으면 그것이 ‘평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이나 위협 대신에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신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바로 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평화를 이룬 날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들의 노래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화해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평화의 사건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고, 약한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성탄의 기적이 2000 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78 년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1 세가 서거하셨습니다. 취임한지 겨우 33 일만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동안에, 특별히 임종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게 될 때에 가장 많이 그 일기문의 영향을 받은 곳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기문을 바탕으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그 해의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고한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돌려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 화해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축복된 성탄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